

쿠팡 등 심야배송 제한안 논쟁에 관한 집담회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 심야배송을 둘러싼 성찰과 대안, 우리의 선택은?

- 쿠팡 심야배송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우상범 박사_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객원연구원
- 이윤과 성장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와 기업을 바라며 / 손은정 총무_영등포산업선교회
- 무조건 편리보다 모두의 권리를 생각하는 기독교민의 자세와 실천을 성찰하다 / 이창호 본부장_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2시~4시

영등포산업선교회 3층 강당 _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3길 24

공동주최 : 기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SINCE 1958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주소 (07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3길 24

홈페이지 www.ydpuim.org 전화 02-2633-7372 메일 ydpuim@gmail.com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서 및 목차

14:00-14:05

Ⅰ 사회 정재훈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변호사)

14:05-15:15

Ⅰ 발제

1. 쿠팡 심야배송의 주요 쟁점과 과제 - - - - - 3p
우상범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객원연구원)
2.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와 기업을 바라며 - - - - 17p
손은정 총무 (영등포산업선교회)
3. 무조건 편리보다 모두의 권리를 생각하는 기독 시민의 자세와 실천 - 25p
이창호 본부장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15:15-15:45

Ⅰ 질의응답과 대화

[발제 1]

쿠팡 심야배송의 주요 쟁점과 과제

우상범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객원연구원)

쿠팡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야간배송

- 야간배송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과 과제 -

2025.12.11

우 상 범

목차

I. 문제제기

II. 우리나라 택배업 현황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IV. 국회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V. 결론

I. 문제제기

◆ 생태 교란종

-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법 제2조)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I. 문제제기

◆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대두

- 2017-2024년 택배노동자 총 사망자수는 64명(산재 불승인 8명+승인 58명)
- 코로나19 이전 8건, 이후 58건 → CJ대한통운 등 기존 택배사
- 과로사 해결 위해 2021년 노사민정 택배과로사대책위 구성 → 1차, 2차 사회적 합의 체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	계
사고사망		1	1	3	1	8	3	1	18
질병사망	3	2	1	9	12	4	11	4	46
계	3	3	2	12	13	12	14	5	64

자료: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 최근 과로사는 쿠팡에서 다수 발생 → 2020-2025동안 26명 사망(과로사로 추정 18명)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친) 사망사고 0건, 김주영 의원실 자료)

발생센터	사망자	지역	사고 개요
3월14일 오후 10시	50대	경기 안성	1층에서 화물 분류해 옮기다 쓰러져 사망
8월20일 오후 9시11분	50대	경기 용인	냉동창고 화물 분류작업 중 쓰러져 사망
11월21일 오후 10시30분	30대	경기 동탄	내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
11월26일 오전 2시14분	50대	경기 광주	카트에 물품 담아 이동하는 업무 중 쓰러져 사망
택배			
8월12일 오후 2시26분	50대	경기 안성	택배 차량 운행 중 뒤편에 이상 느껴 119 신고, 병원 이송 후 사망
10월1일 새벽	40대	경북	각(각) 배송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사망
11월10일 오전 2시16분	30대	제주	11월자 운전 중 동선주 돌이발아 사망

경향신문(2025. 11. 28)

I. 문제제기

◆ 논쟁의 그 기업, 쿠팡



◆ 본 원고의 목적

- 우리나라 택배 현황
- 택배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쿠팡 성장 원인
- 국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 야간배송에 대한 대안 모색

II. 택배업 현황

◆ 택배 물량

- 2024년 총 택배물량은 59억5천만개로, '23년(51억5천만개) 대비 15.48% 성장
- 물동량 증가율은 2022년 16.0%, 2023년 22.5%, 2024년 15.5%로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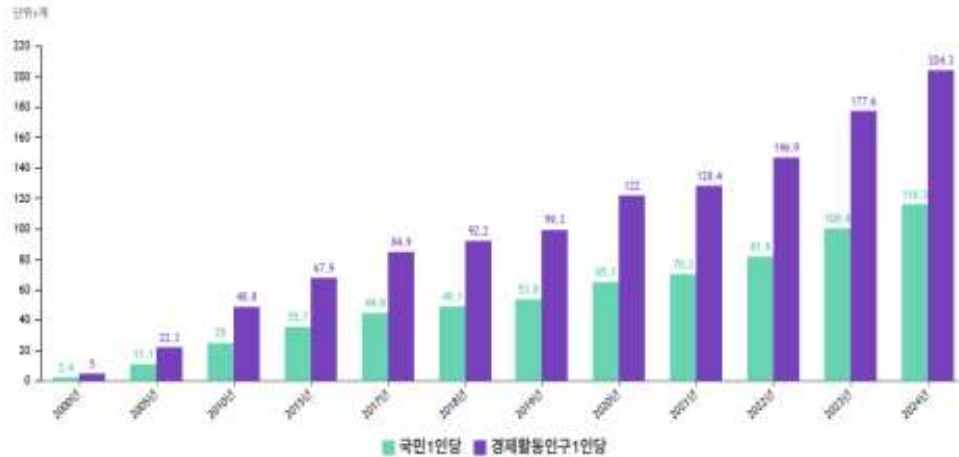
II. 택배업 현황

◆ 택배이용 횟수

-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는 116.3회(cf. 15세 이상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204.3회)
- 2000년 5회 → 2024년 204회로 40배 증가
- 택배는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재로 자리매김

연간 이용횟수

택배이용 횟수 추이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II. 택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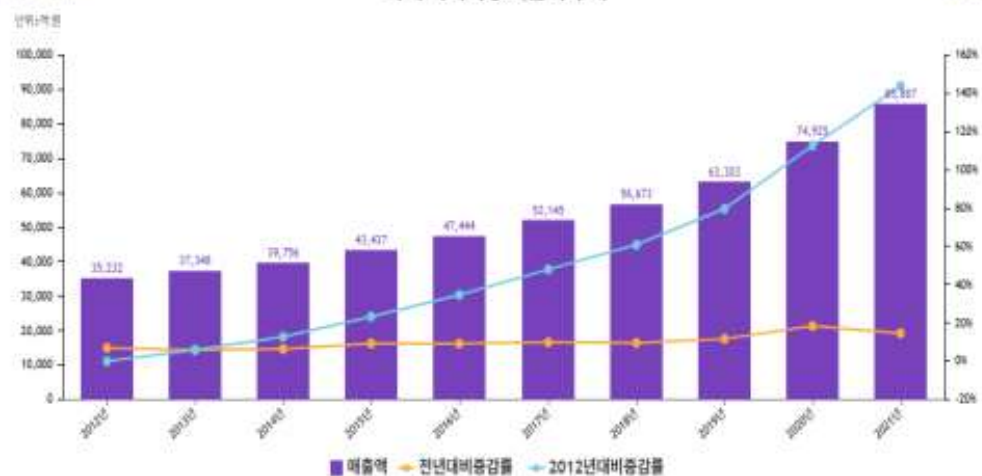
◆ 택배시장 매출액

- 2021년 국내 택배시장의 총 매출액은 8조 5천 8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 증가 원인

연간 매출액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 추이

증감률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II. 택배업 현황

◆ 평균 택배단가

- 평균 택배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2,366원으로 상승
-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따라 각 택배사들의 단가(170원) 인상 때문
-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의 건당 배송 수수료는 800원 내외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야간 쿠팡 택배기사들 근무 현황

coupang

배달 지역	서울	부산	목성
근무 기간	무제한	3년	3년
근무 시간	24시간 (0시~0시 30분)	24시간 (0시~0시 30분)	24시간 (0시~0시 30분)
취급처별 근무 구분	100% 직면	100% 직면	아파트사직면
통로권 제한 여부	1시간 30분~2시간	1시간 30분~1시간 30분	1시간
근로시간 준수율	80%	40~80%	70~110%
배달 횟수	200~280개	250개	별과제 없음
일 시착할 배	1100원 (24시간 내 직면)	1200원 (24시간 내 직면)	1200원 (24시간 내 직면)
현재 인건	1100원	1200원	1200원 (24시간 내 직면)
배달금 수입	약 100만원	약 100만원	별과제 없음

700원 미만
직면 시 1000원 추가 지급

약 150만~200만원

자료: 한겨레(2025.11.11)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이 제외된 2021년 국회 사회적 합의

- 배경: 2020~2021년 동안 25명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사망 발생
- 합의: 2021년 1월(1차 합의)와 6월(2차 합의) 달성 →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 및 근무 환경 개선(핵심: 분류작업 배제 및 주 최대 노동시간 규정)
- 참여업체: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모든 택배사들 모두 참여(but 쿠팡 제외)

	주요 합의 내용	현재 이행 상황
분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작업 택배노동자 배제 • 분류 전담 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 • 택배노동자 투입시 수수료 지급 • 쿠팡은 택배노동자 분류 투입(수수료 X)
원가 및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당 170원 인상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 금지 조정 • 주 5일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택배사는 1일 7.5~9.5시간, 주 45~53시간 근무 (일부기사는 12시간, 60시간 이상 근무 존재) • 쿠팡은 1일 약 10.3시간(야간 8.3시간) (분류시간, 프레스백 회수 시간 미포함)
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택배사는 사용자(영업점)에서 부담 • 쿠팡은 영업점과 노동자 5:5 부담
공정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택배사 표준계약서 활용 • 쿠팡은 표준계약서 미활용

◆ 쿠팡 제외 이유

- 직접고용 및 근로기준법 적용(cf. 기존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로법상 노동자 아님)
- 자체 택배 배송 적음 → 대부분의 택배를 기존 택배업체에 위탁
- 택배업체가 아니라 유통/물류업체(자체 물류 시스템 구축 주장)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택배업 절대 강자 변화

- 부동의 1위였던 CJ대한통운에서 쿠팡으로 바뀜
- 쿠팡의 급성장 원인 → 로켓배송(새벽배송+당일배송)과 로켓프레시

<2023년 택배업 시장 점유율>



<2025년 택배업 시장 점유율>



자료: 시사저널e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의 매출 현황

- 2024년 매출 41조 2,901억원, 영업이익 6,023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cf. 유통공통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백화점 35조 5,913억원, 롯데쇼핑 13조 9,866억원)
- 로켓배송, 로켓프레시의 매출이 36조 4,093억원으로 88% 차지(1번 이상 구매자 2,470만명)
- 2025년 3분기까지 매출은 257억 달러(35조 6천억원)으로 2024년의 85% 육박 → 올해 역대 최대 성과 달성 예상(매출 50조원 이상, 영업이익 9,000억원 예상)

쿠팡 매출 추이 (단위: 억원)



분기	매출(달러)	한화(원)
2025년 1분기	약 79억	약 10.9조 원
2025년 2분기	약 85억	약 11.9조 원
2025년 3분기	약 93억	약 12.8조 원
계	약 257억	약 35.6조 원

자료: 이코노미스트(2025.11.05)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의 성장 배경(1): 로켓배송(새벽배송+당일배송)

- 전국 물류망 → 2027년까지 '전 국민 100% 로켓배송' 추진
- 로켓배송: 쿠팡이 자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미리 상품을 적재해 놔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는 서비스
- 2014년 처음 시작 후 전국 확대 → 밤 12시 전 주문하면 오전 7시에 받는 '새벽배송', 오전 10시에 주문하면 당일 자정(밤 12시)에 받는 '당일배송'으로 진화
- 로켓배송 품목은 500만 개 이상
- 로켓배송(새벽배송+당일배송) 회원은 1,400만명(2023년 말 기준)
- 쿠팡 창업자 김범석 대표의 쿠팡 미션: '고객들이 쿠팡 없이 살수 없는 세상 만들기'

→ 택배사들 365일 배송 및 야간 배송 도입

- CJ대한통운: 365배송과 야간배송
- 한진택배: 365배송
- 롯데택배: 365배송 준비 및 다회용기 수거 사업 시범운영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의 성장 배경(2): 클렌징 제도

- 대리점이 쿠팡CLS가 정한 배송·수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정 → 쿠팡CLS와 대리점간 택배 배송 계약 즉시해지(클렌징) → 택배노동자 실직
- 야간배송은 아침 07:00전에 무조건 배송 완료
- 클렌징 제도 주요 내용

	정의	서비스 불충분 기준
2회전 배송 미수행	계약된 배송시간대(주간, 야간)별 1일당 2회전 배송업무 미수행 기간 및 건수	2주 동안 2건 이상
신선식품 수행률	계약된 전체 노선(이하 전 계약노선)에서의 직전 4주간(이하 월)의 신선식품 물량 중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비율	95% 미만
휴무일 배송률	월 중에 포함된 주말, 공휴일 기간 동안의 전 계약노선의 물량 중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비율	70% 미만
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 비율	전 계약노선의 월 물량에서 영업점의 지연배송으로 인해 PDD 이후 배송된 물량의 비율	0.5% 이상
전체 프레스백 회수율	전 계약노선에서 회수가 위탁된 프레스백에 대한 월 회수율	90% 미만
긴급 프레스백 회수율	전 계약노선에서 긴급 이슈나 고객요청에 따라 회수가 위탁된 프레스백에 대한 월 평균 회수율	95% 미만

자료: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 마감 및 성과에 대한 높은 감정적/정신적 압박, 충분한 휴식 불가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의 성장 배경(3): 비정규직 활용

- 택배노동자 현황
 - ✓ 정규직인 쿠팡 친구: 약 7,500명
 - ✓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인 킥플렉스: 약 23,000명
- 물류센터 종사자 현황
 - ✓ 주간조(오전 7~8시 출근, 오후 5~6시 퇴근)
 - ✓ 야간조(오후 6시~새벽 4시)
 - ✓ 심야조(일부 센터, 밤 10시~오전 7시)
 - ➔ 고용형태: 정규직(10%)+ 비정규직 90%(일용직 40%+계약직 50%)
- 새벽배송(야간배송)
 - ✓ 1회전 배송: 밤 9시 물류센터(캠프)로 출근해 밤 10시에 배송
 - ✓ 2회전 배송: 밤 12시에 다시 상품을 싣고 이튿날 새벽 1시 30분에 배송
 - ✓ 3회전 배송: 새벽 3시에 다시 상품을 실은 뒤 새벽 4시 30분에 배송
 - ✓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 종료 후 퇴근
 - ➔ 새벽배송 노동자: 약 13,000명(cf. 마켓컬리 2,000명)

➔ 근로기준법 책임으로부터 회피, 인건비 절약, 인적관리 책임 면제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의 성장 배경(4): 무차별적인 인사 영입을 통한 경영 불확실성 제거(로비)

- 최근 5년간 44명 퇴직공직자 영입(cf. 2025년에만 18명 영입, 5-6월 4급 이상 노동부 공무원 8명 채용)
- 영입 인사 절반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출신 →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임원급 기용
-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과로사 문제로 노동 규제 및 국정감사 대응하기 위한 수단



자료: 경향신문(2025.11.25)

공정위 부과 대기업 과징금 규모



자료: 연합뉴스(2025.3.6)

➔ 모든 정부 기관의 전방위적 로비를 통한 경영 위험성 제거

III. 쿠팡 현황과 성장배경

◆ 쿠팡의 성장 배경(5): 지배구조(거버넌스)로 인한 사회적 책임 회피

-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있고, 미국 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미국 기업
- 상당수 주식 외국인 소유 → 전체 매출의 90% 이상 한국에서 발생, 실질적 통제권은 미국 본사 쿠팡Inc
- 이사회 8명 모두 외국인(☞ 창업자 김범석(범킴) 미국 시민권자)
- 김범석 주식 지분율이 10%에 불과(2대 주주) → 전체 의결권의 76.5% 보유
- 국내 전문 경영진은 형식적이고, 진짜 경영진은 미국에서 의사결정하고 법적 책임 회피
- 돈은 대한민국에서 기부는 미국 → 김범석 대표는 2024년 200만주(약 672억원)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



자료: 서울뉴스(2024.2.2)

주주명	지분 비율	이익 비율	비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3.9%	6.3%	
범킴	10.1%	76.5%	(30)
모건 스탠리	6.9%	1.8%	
베일리 카포트	6.5%	1.7%	(40)
일렉타	4.0%	1.0%	(43)

2023년 3월 기준

이름	구분	발행일	비고
김민	ASAC	2010년 5월	비고
변자빈 김		2010년 7월	(42)
남 매다		2010년 13월	
캐번 옌사	사외이사	2019년 10월	
파드모 프랑세스키		2022년 3월	(43)
앤서니 로바사		2022년 3월	(44)
제이슨 차일드		2022년 4월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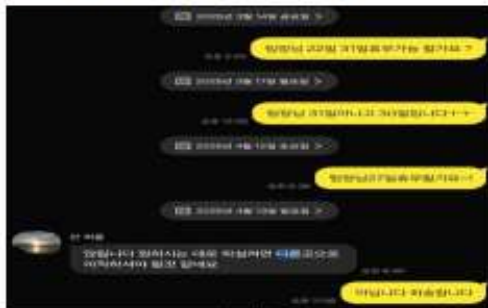
2024년 3월 회사회 기록

자료: 나무위키

→ 모든 책임 전문 경영진에 떠넘기기 및 국회 청문회 등 참석 회피

IV. 국회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 최근 발생한 쿠팡의 과로사 원인



○ 쿠팡 이근도 택배기사 일과

- 주5일, 격주5일, 주6일 등 다양
- 일과

시간	일과
20:30 ~ 21:00	출근
21:00 ~ 22:00	프랜차이즈 센터 방문, 분류작업(통수분), 상자개입, 진열
22:00 ~ 23:00	배출 (1회전)
23:00 ~ 24:00	검표 복귀
24:00 ~ 01:30	분류작업(통수분), 상자개입
01:30 ~ 03:00	배출 (2회전)
03:00 ~ 03:30	검표 복귀
03:30 ~ 04:30	분류작업(통수분), 상자개입
04:30 ~ 05:00	배출 (3회전)
05:00 ~ 05:30	*모든 통분리 배출 마감(3회전) 오후 3시
05:30	회근

동아오면 그냥 쓰러져 자기 바빴어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녁이 되면 한 6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그름 되면 고기류를 잘 못 먹었어요. 속이 부대끼다고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먹으면 일을 하지 못 한대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1주일에 하루 쉬었지만 리듬이 깨진다고 하는 날에도 밤에 잠을 안 잡아요. 밤에 연 켜어 있으면 그 다음 근무하는 날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쉬다고 해도 회근 날 아침 잠에 와서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하루를 통째로 쉴 수 있는 날은 없었어요.

(정순기 씨 배우자 인터뷰 내용)

그날 (주은 동양) 400개가 나오든 500개가 나오든 분명이 다 해야 돼요. 사람들은 '물랑 조절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맡았으면 그냥 끝내야 돼요. (아침) 7시까지 클렌징으로 인해서

(정순기 씨 배우자 인터뷰 내용)

자료: 뉴스타파(2024.9.30)

IV. 국회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 최근 발생한 쿠팡의 과로사 원인

- 2025.11.10일 새벽배송을 하다가 숨진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고(故) 오○○씨 근무시간표
- 4-5일 야간배송 연속 근무
- 심지어 7일 이상 야간근무자도 존재



IV. 국회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 국회(민주당 주도) 사회적 대화

- 2021년 1, 2차 사회적 대화에 이어 2025년 10월 3차 사회적 대화 시작
- 노조(양대노총 택배 관련 노조), 사용자(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 물류협회 등), 정(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등), 국회(민주당) 참여

	노동계		사용자	
	민주노총(택배노조)	한국노총(택배산업본부)	우방	마켓컬리
쟁점 야간배송	0시~5시 야간배송 제한하거나 금지 간접 비용 폭력으로 제한	야간배송 주 50시간으로 제한 3회전 배송 → 2회전 배송 야간 수수료 인상	초심야시간대 배송 제한 및 5시 출근시 야간배송 불가 → 수용 불가 배송시간 부족으로 인한 기사 과로 위험 증가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하여 폭력 제한도 수용 곤란	야간배송 중심 사업 특성상 수용 불가
노동시간 및 주5일제	주 60시간(야간 46시간)	'택배없는 날'(8월 14일) 무급 참여 주 5일제 도입	기사 배송물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추가 연혁 고용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발생 근무시간 산정 기준 및 주당 최대 근무시간에 대한 추가 논의 익일 배송 물량 증가로 '택배없는 날' 휴일 불가 각주 5일제 시행 중	종근무시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분류직업	분류직업 및 프레스백 회수 업무 배제 다회전 배송 및 정시배송 기준 폐지	분류직업서 수수료 지급	분류직업 개선 검토 중 프레스백 회수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 다회전 배송은 쿠팡의 배송 체계상 필요	
소득 보전	야간 수수료 할증(주간액의 50%)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감소 보전	배송구역에 따른 차별적 수수료 인상 적용 주간보다 높은 수수료 지급 필요하여 배송구역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가능	
건강검진 상생수당	맞춤형 정밀 검진제 도입	건강검진 확대 건강검진 비용지원 상생수당 지급 확대 상시 대책안 확보	현재 건강검진 지원 중이며 활성화에 동의 적고 용 기사를 통한 대체연혁 지원 중이며 추가 검토 산재보험 유입금에, 상생수당 신청 등 적극 협력	건강검진 비용 지원 중 및 활성화에 적극 동의(특히 건강 진단 비용지원 사업)

IV. 국회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 야간노동의 위험성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은 발암 물질
- 과로사뿐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유발하는 발암 요인
- 야간노동은 몸이 적응 과정이 아니라, 회복되지 못한 생체리듬의 파괴가 누적되는 과정
-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야간노동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요구

◆ 우리나라 야간노동에 대한 법 규정 → 쿠팡 소속 노동자는 특고직으로 법 적용 예외

	찬성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사용자야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노동을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특수건강진단 받도록 함

◆ 야간배송(자정~05:00)에 대한 사회적 찬반

찬성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심야 배송에 택배기사의 건강과 과로사 문제의 핵심 원인 ▪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 ▪ 피로 누적 상태에서 야간차량 운행시 사고 발생 ▪ 배송압박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쉬는 시간 없이 수행 ▪ 높은 노동강도 ➔ 심야배송 전면 금지 또는 초심야 배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배송은 많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의 일부 ▪ 금지시 유통 생태계의 혼란 발생 ▪ 소비자 생활 불편 초래 ▪ 교통혼잡 감소 및 주차장이 용이하여 배송시간 단축 ▪ 주간 대비 높은 소득 보장 ▪ 자유로운 주간시간 활용 ▪ 투잡 가능

IV. 국회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주요 쟁점

◆ 정치적으로 이용 세력

- 경제지와 보수지, 및 일부 정치인 → 국민 편익을 이유로 야간배송 찬성 기사 확대
- 국민 다수가 야간배송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 왜곡



- 실제 야간배송 제한 규제: 찬성 45%, 반대 49% →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
- 젊은 층 및 남성의 야간배송 허용에 대한 높은 지지



주: 엠브레인퍼블릭, 캐이스넷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1/10~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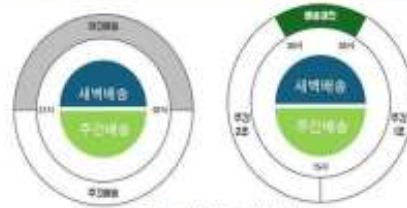


V. 결론

◆ 야간배송 전면 금지(원칙)

- 2교대제 운영하여 밤 12시-새벽 5시까지 배송 제한
- 주간조와 야간조의 교대 운영은 유연하게 적용

	운영시간
주간 1조	05:00-15:00
주간 2조	15:00-24:00



자료: 민주노총 성명서

◆ 야간배송 일부 허용(유연성)

- 품목제한: 신선식품(야채, 유제품 등) 중심의 야간배송 운영 → 야간배송 서비스 기업 존재
- 야간배송 할증료 부과: 야간배송 고객에게 배송비 할증 부과(2-3배) → 할증료 별도 관리하여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향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수수료 인상, 4대보험, 건강검진 등)

◆ 노사관계 활용

- 택배노동자들의 적극적 조직화 및 노조 가입 → 교섭력 증대 및 이해대변 제고
- 노조법 2, 3조 개정(사용자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가능

◆ 소비자 의식 변화

- 나의 워라벨(저녁이 있는 삶, 주4일 근무 등)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워라벨도 중요
-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이기적 인식 지양 → 나를 위해 타인 생명 희생?

V. 결론

◆ 사회적 협약 이행 의무화

- 국회 사회적 협약에 대한 매년 이행점검 실시와 이를 위한 '노사 이행점검단' 구성
- 사회적 협약은 모든 택배사 및 신생 택배사들에게 모두 의무 적용

◆ 성경적 접근

- 미쉬파트와 체다크 수행
- 오늘날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정의적 행위 필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애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신명기 24:14-15)

◆ 지금 아니면 차후 논의 불가

- 모든 택배사들이 야간배송 준비 및 시범사업 추진

[illegible]

자료: 연합뉴스(2025.11.30)

택배 야간배송 및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적기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와 기업을 바라며

손은정 총무 (영등포산업선교회)

1. 여는 말

오늘 쿠팡의 심야배송과 관련하여 집담회를 먼저 제안해 준 기윤실에 감사를 드린다. 이곳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작년 5월 산재로 사망한 정슬기님과 유족들의 슬픔에 함께하기 위해 ‘쿠팡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시작한 곳이다. 주 6일 지속된 심야배송이 원인이 되어 과로사한 슬기님을 생각할 때마다 심야배송에 대한 규제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이윤과 성장이 절대적 가치이자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음을 목격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잃으면 이윤과 성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 로켓의 속도와 이윤중심의 질서를 전복하고 생명과 안전사회로 가는 일은 여러모로 단순치 않다. 오늘 이 집담회가 열린 것도 현재 심야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서로 인내하며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윤과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업과 정부가 되도록 하려면, 먼저 기업이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시 141:5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의 불씨를 피워낸 전태일은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데 있다 했다. 자신은 불의를 보면 묵과하지 않고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의 희망함은 동사형이며, 그 내용은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시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으며 그 가운데서 대안을 설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의 역할 역시, 불의와 악행을 고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산재로 희생된 분들의 곁을 동행했던 경험과 그 입장에서 쿠팡기업의 악행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심야배송 관련 현재의 이슈

우선 오늘 심야배송 논의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사IN 전해원 기자가 11월 26일에 쓴 현재의 심야배송과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여 요약해볼 필요가 있겠다.

10월 22일 3차 사회적 대화의 첫 전체회의에서 택배노조가 제시한 밤12시-새벽 5시 배송제한 제안을 한국경제가 “새벽배송 금지하라... 도넛은 민주노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논쟁은 새벽배송 금지 찬반으로 흘렀다. 배달 노동자들도 이를 원한다며 새벽 배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다. 상당수 배달 노동자는 단가 높은 새벽 배송을 원할 것이다. 저마다의 이유와 상황으로 새벽 배송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의 현실은 신기루 같으면서 동시에 벼랑 끝처럼 보인다. 운이 좋으면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나쁘면 죽음에 이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새벽 배달의 위험도가 주간보다 크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다양한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다. 나금찬씨(36세)는 택배노조 조합원인데, 심야배송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심야배송 단가를 올려주고, 오전 7시인 마감시간을 30분이라도 연장해준다면 중간에 30분이라도 쉴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금은 30분 쉬면 미스가 나고 그게 누적되면 배송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 노동 강도만 조금 낮춰줘도 과로사가 훨씬 줄 것 같다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에 고용된 인원도 전국 5만-6만 명에 이른다. 10%는 정규직, 40%는 일용직,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주간조(오전 7-8시 출근, 오후 5-6시 퇴근), 야간조(오후 6시-새벽 4시), 심야조(일부센터, 밤 10시-새벽 4시)로 나뉘어 일한다. 주간조 시급이 1만 220원, 야간조 시급이 1만 70원으로 야간조 시급이 더 낮다. 우선 이런 문제들부터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경제학자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말했다. “시간에 대한 규제없이 프리미엄, 추가수당만 올리면 기업 처지에서 야간노동을 쓸 인센티브가 줄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노동에 뛰어들 유인이 커진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야간노동은 개인의 단기적 이해관계와 사회 전체의 장기적 이익이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시간 규제라는 접근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송기사뿐 아니라 소비자가 강력한 이해관계자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기업이 뒤로 빠지기 쉬운 구조다. 결국 논의가 성립하려면 소비자의 심야배송 반대(불매)운동이 함께 결합해줘야 하는데, 어쩌면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의 이슈 중에서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논쟁이 있었을까?

시사IN이 입수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1차 실무회의 논의 결과 자료를 보면, 쿠팡은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중단하자는 택배노조의 제안에 대해 배송시간 부족으로 인한 기사 과로사 위험 증가를 이유로 <수용불가>하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품목 제한도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하여 <수용 불가>하다고 했다. 그래서 쿠팡 측에 야간고정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새벽 배송 가격을 올리거나, 새벽배송이 아니라 더 늦은 배송을 받도록 소비자가 선택하게 할 예정은 없는지, 최근 몇 년간 배송단가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3. 과로사조차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

심야배송은 중노동이다. 심야배송을 지속적으로 수개월, 수년씩 하는 것은 근골격계질환과 부상, 그리고 심장질환을 비롯하여 질병을 유발하고 지독한 고립감과 우울증과 같은 내상을 남긴다. 다른 한편, 심야노동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 심야배송 같은 경우, 심야의 도로는 한산해서 차가 잘 빠진다고, 심야할증이 붙어서 임금이 높다, 심야에 일을 하는 것이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지 규제와 금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법 있다. 심야에 누가 일하라고 끌고 가진 않는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 논리들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이것이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야배송을 하다가 숨진 유가족들도 바로 이 논리 앞에서 스스로 책망을 하고 깊은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정슬기님은 주6일 심야배송 일을 하다가 41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젊은 나이에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노동 강도는 엄청났다. 주6일간 밤 8시에 집을 나가서 아침 7시에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쿠팡 남양주 캠프에서 물건을 싣고 3회전 배송작업을 13개월간 했다. 물건을 소분해서 싣고 배송지에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싣고 나르고 옮기고 배송지에 가져다 놓았을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들도 있지만 연립주택의 경우나 높은 언덕에 있는 집들의 경우는 결국 몸으로 이고지고 옮길 수밖에 없는 데 이 과정에서 이 젊고 건장한 사람이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늘 약봉지를 달고 살았다. 그러나 슬기님은 4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심야노동을 계속했다. 슬기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아내는 남편이 그 통증들을 호소할 때 중단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자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네 명의 자녀 중 어떤 아이는 아빠가 쓰러진 것에 엄마가 긴급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자신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엄마가 위기대응을 못했다는 등의 또 다른 자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신의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심야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숫자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음을 거리에서, 언론보도에서 목격하면서 가족들은 적어도 그 무겁고 잘못

된 자책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일원이며 이러한 악랄한 노동구조를 바꾸는 것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원통함을 양산하지 않는 길임을 인식함으로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

4.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 최근 시민대행진에서 나온 발언들

11월 23일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이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쉼 권리,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의 대표구호는 밤에는 자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늦어도 괜찮아! 과로 없는 안전한 배송! 이었다.

1) 편의점 점주 발언-새벽 배송차량 보면 가슴 철렁! 편리함이 신앙인 시대! 마법같은 편리함은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것이다.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착취다. 골목상권은 온라인 24시간 배송으로 너무 어렵다. 우리는 서로 이웃이다. 새벽배송은 중단해야 한다.

2) 또 다른 시민 발언-소비자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상품을 받고 싶다. 공산품을 새벽배송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배민이 일회용품 보이게 설정했듯, 쿠팡도 로켓을 화면에 잘 보이게 설정하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새벽배송을 원하지 않는다.

3)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연대-편리함 뒤에 있는 불편한 진실, 정슬기님 비극이 제주도 오승용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분들의 희생은 우리 이웃들의 비극이다. 새벽배송은 노동 강도를 넘어 낮은 배송단가의 문제와 이윤추구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것이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갈등만 비춰진다. 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노동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라! 로켓만큼 빠르지 않아도 된다! 주말에 받지 않아도 된다.

4) 쿠팡 택배기사 모씨(32)-“사람이 죽으면서 일하지만 소비자가 편한 길과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라고 했다. 소비자의 편리와 야간 노동자의 대결로 표면화되지만 사실 뒤에는 무한이윤을 위해 달리는 쿠팡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

5. 쿠팡 기업의 악행을 고발함

1) 전쟁 같은 밤일을 부활시킨 점

1980년대 노동현장과 대학가와 집회 후 뒷풀이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있다. 박노해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노동의 새벽이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이 노래는 심야노동을 밤일이라고 표현하고, 이 밤일을 전쟁에 비유했다. 전쟁 같은 밤일!

이어서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가 나오는데 왜 지금 이 노래가 다시 떠오르는가? 이 노래는 80년대에 한창 많이 불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흘러간 노래였다. 그런데 지금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전쟁 같은 밤일은 오래 못 간다. 끝내 못 간다는 가사가 마치 무슨 메시지처럼 떠오른다.

쿠팡은 2010년에 시작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로켓의 속도로 시장을 독점했다. 쿠팡은 시장을 독점하면서 동시에 이 전쟁 같은 밤일을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난 5년 사이, 쿠팡 노동자들이 30여명이 사망했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이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겪는 충격과 상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작년 정슬기님의 자녀가 쓴 아래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충격과 상실과 분노를 짐작하게 했고, 그 고통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정직한 응시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2) 세상을 쿠팡하겠다는 집념과 야욕

쿠팡 택배 기사 오승용씨는 11월 10일 제주에서 심야배송 중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일 오씨는 부친의 장례를 막 치르고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했다가 장시간 야간 노동과 연속 근무, 충분한 휴식 부족 등 극심한 과로 상태에서 숨졌다. 오승용 씨(33세)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19일 국회에서 호소한 내용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제 동생은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아빠 장례 뒤에도 하루 밖에 못 쉬고 새벽 어둠 속으로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이 몇 시간 잠을 자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간에 쫓기며 목숨 걸고 운전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죽어도 또 뽑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쿠팡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쿠팡 산재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겪는 비통함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 필자는 작년에 정슬기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쿠팡 기업의 미션가치를 찾아보았다. 기업의 미션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쿠팡 없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를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치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와 같은 밀어 갈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와 같은 신앙고백의 패러디같이 들렸다. 전지전능한 기업이 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을 보았는데, 김범석 의장은 청중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쿠팡하라! 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부흥회 강사가 외치는 ‘세상을 구원하라’를 연상시켜 주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김범석은 쿠팡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모습들이 젊은 창업주의 패기로 느껴지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게 느껴졌다. 이런 목표와 집념을 가진 자의 머리에서는 어떻게 상품수를 더 늘리고 회원 가입률을 더

환상적으로 끌어 올리고 전국에 쿠세권을 빠르게 확장할 것인가가, 그리고 이 쿠팡을 어떻게 아시아와 세계로 확장할 것인가로 짝 차 있을 것이다. 그는 쿠팡 쿠세권과 쿠팡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몇 명쯤 쓰러지고 죽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어쩌면 감수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여길 지도 모른다.

쿠팡은 코로나 시기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연이어 숨질 때 긴급히 마련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심야에 쿠팡물류센터에 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기고 만장함도 보여주었다.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청문회에 출두하라고 해도 김범석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일반 주식인 클래스A 보통주는 없고, 클래스 B 보통주만 1억 5780만 2990주(전체 주식 수 기준 지분을 8.8%) 갖고 있다. 클래스 B 보통주는 일반 주식과 달리 29배의 차등 의결권이 부여된다.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약 73.7%를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한다. 그러나 한국 쿠팡의 등기 이사직은 사임해서 중대해처벌법등의 책임은 피하고 있다. 황제적인 경영권은 유지하며 실제적으로 지배하되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에게는 현재 유가족들의 아픔, 신음소리, 비통한 절규를 들을 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언제라도 꼭 한번은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슬기님 자녀가 작년 10월에 쓴 편지글을 깃발처럼 걸어둔다.

“우리 아빠는 죽었다. 일하다 돌아가셨다. 남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살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을 노예로 길들이고 있다. “쿠팡의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 나는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리도 힘든 건지 몰랐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 천국에선 아프지 마세요. 일하지도 말고 꼭 쉬세요.”

3) 대관업무팀 강화로 실질적 통제를!

쿠팡은 문지석 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타났듯이 사회 각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윗선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쿠팡은 관을 상대할 수 있는 <대관업무팀>을 굴리고 있다. 이 대관 업무에는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 국회에서 의원보좌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된 전방위 로비팀이다. 법과 행정과 언론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사법, 언론을 능수능란하게 통제해왔다. 시장 지배력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쿠팡이 쓴 이 전략들은 매우 용의주도하고 무서울 정도로 거칠고 담대하다.

작년에 정슬기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 어른이신 김상근, 안재웅 목사님과 백기완 노나매기 재단의 이사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쿠팡사장단 면담을 요청했다. 이것을 하려면 대관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정중히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관팀은 공문을 보내라고 해놓고는 끝까지 단

한마디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회원로들에 대해서조차 면담도 응답도 없이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시민들의 분노와 연대의 함성-김범석은 직접 사과하라! 청문회에 출두하라!

최근에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시늉만 하고 바로 싸고 좋은 물건을 특가상품으로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화난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쿠팡을 탈퇴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하였다. 시민사회에서 소비자단체들에서 쿠팡의 실제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6. 정부의 역할-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된 택배노동자들! 노동자로 바로 잡기!!

1970, 8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압축 성장을 향해 노동자들을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내몰았다. 8시간이 기본인데 매일 잔업 4시간이 포함된 12시간이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18시간의 곱빼기 노동이 횡행했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을 익힌 각성된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사적인 투쟁으로 8시간쟁취,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냈다. 한 사업장의 승리는 관련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승리의 역사를 썼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투쟁하여 마침내 1980년 3월 2일 해태제과(사탕, 과자, 껌, 아이스크림 등 식품회사) 노동자들이 이뤄낸 8시간노동쟁취 투쟁의 역사이다.

이 당시 야간노동이 심각했다. 지금 쿠팡 물류센터와 쿠팡캠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야간노동이 똑같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고, 여성과 어린이는 야간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노동은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되어 4대보험과 산재보험 등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야간노동 금지 조항 적용도 받을 수 없고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오분류 된 860만이나 되는 개인사업자들이 노동자로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고 권리를 찾게 하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최근에 이것을 착수하고자 나섰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쿠팡 산재사망사고가 난 현장에 불시점검을 나간 것, 그리고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12월 중순에 열기로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이제야 정부가 노동자를 소모품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역할도 노동자들의 단결된 요구와 힘이 없이는 결코 한 발짝도 전진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진실이다.

7. 맺으며

정부와 기업의 공통 역할

작년에 폭로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이 불법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면 현재의 개인정보유출사고도 방지 가능했을 것이다. 작년 2월에 폭로된 쿠팡의 일용직 퇴직자 16,450명이 쿠팡 블랙리스트의 숫자였다. 이것은 재채용 배제에 활용되었다. 여기에는 일한 적 없는 언론인 100여명, 당시 현직 이 탄핵 국회의원 등이 들어 있었다.

퇴사자 개인정보도 보관했는데 이것은 전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숨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과징금도 시정명령, 전면조사도 없었다. 경찰수사도 2년째 멈춰 있었다. 작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올해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전 국민이라 할 수 있는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가 어찌면 충분했는데 쿠팡은 고치지 않았고, 정부는 막지 않았다. (12월 7일 MBC 보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것은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전략 8개 중 5번째 93, 94항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힘써야 한다. 전략 5의 93항 과로사 방지를 반드시 임기 안에 실효성 있게 실시하라!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임금체불 근절/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건설, 물류, 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 계약 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 화물 안전 운임제 재도입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기업을 뜻하는 컴퍼니(company)는 ‘함께 빵을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업은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심야배송과 경쟁으로 인해 산업재해와 과로사가 증가하며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기업 쿠팡은 시장을 지배하는 제국이 아니라, 직원들과 빵을 함께 나누는 기업의 본래 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생각하고 신속한 전환을 이뤄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편리보다 모두의 권리를 생각하는 기독교 시민의 자세와 실천

이창호 본부장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1. 들어가는 말 - 편리함 속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

올해 9월, ‘택배사회적대화기구’를 출범시키며 심야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벽 배송(오전 0-5시)’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업체, 소상공인, 택배노동자와 소비자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잡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저는 법안이나 정책 이야기보다 한 아이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쿠팡 심야 노동으로 돌아가신 고 정슬기 님의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들었다는 말로 "아빠가 로켓의 연료가 되었다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편리함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뼈를 갈아 넣는 수고들이 있기 때문인데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함을 얻기 위해 계속 누군가의 희생을 보고도 무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2. 구조적 현실과 생명의 위기 딜레마

심야 배송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심야 배송 규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생명과 건강권은 어떤 편리보다 우선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높은 사망률과 재해율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심야 배송 시간대인 0시-5시 구간의 배송을 제한할 필요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심야배송 규제를 반대하는 분들은 심야배송 시스템은 이미 생활과 산업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에 서비스 제한 시 소비자의 불편과 산업 타격, 일자리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긴 노동 시간이라는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심야배송’은 기업의 탐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장의 기사님들 중에도 수입 유지를 위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는 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쿠팡과 같은 업계의 모든 물류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은 ‘심야 배송’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긴 노동 시간이라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것”을 이제는 혜택이 아닌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심야배송은 기업의 탐욕만이 아니라 기업, 시장,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삶의 패턴이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이자, 시민운동가였던 어느 목사님이 실제 택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글을 보면 “우리는 마치 내일도 일하기 위해 오늘 쉬는 기계와 비슷하다면 과장일까?”하면서 “물건이 사람보다 우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발표 전체의 방향을 압축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기독교인의 성찰 -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첫째, 약자 보호의 원리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람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적인 속도경쟁, 다회전 시스템, 프레스백 회수 압박 등 현장에서 겪는 분들의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돌아간 택배 기사님께서 “개처럼 뛰고 있다”고 했던 말처럼 더 빨리, 더 편리함을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한 영혼의 존엄은 사라지는 지점에서 시스템이 효율적일지 몰라도, 우리는 과연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며, 인간적이며, 모두에게 안전한가를 깊이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심야 배송 노동자, 특히 야간 노동자들은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월, 택배 노동기사 사망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 경영진은 분류작업 개선, 휴게시간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돈과 효율’이라는 현실과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이,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 전체 산업 평균보다 9배나 높은 산재율을 방치하는 것이 생명을 우선하는 선택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선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소비자 대 노동자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 편의점 주인과 알바생들과의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의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기업의 경쟁력,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

하는 내용들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내 편리와 네 생명의 싸움이 아닌 해결 방법은 ‘상생’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연료 삼아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과 노동자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계가 제안한 수면권 보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것은 기업에게도 리스크입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노력해야 하고, ‘살인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환경과 택배 노동자를 생각해 ‘죄책감 없는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프레시백 대신 종이박스 사용 등). 결국 공동선은 나의 편리함이 이웃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기업의 이익 역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4. 기독교인의 실천과 대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지키도록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후에 사회적대화기구가 활동을 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약속은 우리의 관심이 적으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과 휴게 시간을 지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에도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운실도 지난 해부터 고 정슬기 님의 사망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달라며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심야배송 멈춤이라는 거룩한 불편을 선택합니다.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로 일했던 목사님도 ‘소비자가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우리는 수입이 조금 줄어도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도 윤리적 소비자가 되어 생명의 대안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심야 배송 규제 논쟁은 “우리의 편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바름에 바름을 찾아가는 행동하는 기독교민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윤리적 책임을 촉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대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